



해리 포터와 반지의 제왕

박경옥

1999년 조앤 롤링(Joanne K. Rowling)의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나온 뒤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T.V.와 컴퓨터의 영향으로 책을 읽지 않던 아이들이 밤새워 책을 읽게 되었던 것이다. 이 작품의 영향으로 환상 문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특히 [반지의 제왕]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해리 포터]시리즈와 [반지의 제왕]이 영화화됨으로써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지금은 [나니아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 질 것이라는 말이 있다.

[반지의 제왕]은 작가가 기독교인(카톨릭)이라는 점에서 기독교로부터 반발을 받지는 않았지만, [해리 포터]는 기독교계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요즘에 와서는 [해리 포터]안에도 좋은 면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사람들도 꽤 있기는 하다.

위의 두 작품은 환상 문학 혹은 환타지 문학에 속한다. 환타지 문학은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 점에서 S. F. 소설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해리 포터] 나라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1권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나오고 2권, 3권, 그리고 4권 '해리 포터와 불의 잔'이 연이어 나오면서 전 세계는 해리 포터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게다가 1-3권은 영화로 나오기까지 하였다. 책으로만 꿈꾸던 해리 포터가 멋진 영화로 눈앞에 펼쳐지자 해리 포터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었다. 영국 작가가 쓴 영국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경계선을 훌쩍 뛰어 넘어 세계 곳곳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세계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영어권의 문화가 이미 세계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타문화권에서도 별로 문화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읽는 외국 동화는 거의 영국의 전래 이야기이거나 영국적으로 윤색된 동화들이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좋은 문학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좋아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하튼 해리 포터는 나오자마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책을 전혀 읽지 않던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되어서 부모들이 좋아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학교들은 이 책이 밀교와 점성술을 부추긴다고 하여 책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 세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책을 읽도록 놔둘 것인가 말릴 것인가 고심하기도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소동없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리 포터를 즐기고 있는 듯하다. 다행이라면 우리나라 부모들이나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교회가 책에 나온 글자들만 가지고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요란을 떨지 않는다는 점을 말한다. 반대로 불행이라면 현재 세상에서 무어라고 떠들든 우리 아이들의 정신세계에 어떤 책이 영향을 미치건 교회나 부모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해리 포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딸아이가 해리 포터를 밤새워 읽게 되면서부터였다. 무엇이 우리 딸의 마음을 빼앗아 갔는지 궁금하여 나도 읽기 시작하였고 딸아子和 마찬가지로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부모들처럼 책 내용을 두고 고민에 빠졌고 딸아이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 글은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였고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과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손질을 하였다.

첫째, 솔직히 해리 포터는 굉장히 재미있다. 마법을 가지고 태어난 해리가 그 사실도 모르고 살다가 호그와트라는 마법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이야기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 알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퀴디치 게임은 그야말로 저자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훌륭한 산물의 하나로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우리의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저자의 상상과 창의력을 힘입어 독자가 함께 날아다닐 때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는 책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 상상이 비록 마법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는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갈등, 어려움, 우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흥분하고 슬퍼한다. 이것이 환타지의 매력이요 장점이 아닌가 싶다. 환타지는 실제 세계를 묘사하는 소설보다 진리를 더 잘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이스(C. S. Lewis)의 [나르니아 이야기]나 돌킨(J. R. R. Tolkien)의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들은 환타지 문학이 아이들로 하여금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래 떡도 해 먹고 엄마 아빠 놀이도 한다. 그러나 놀이가 끝나면 더 이상 모래를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옆 집 개구쟁이를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요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실을 스타의 이미지로 혼돈하여 흉내를 내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환타지의 영향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책 속에 나오는 유명들이나 어두운 학교 분위기들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리 포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지나친 염려를 놓게 되었다. 해리 포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 책 속에 나오는 마법과 주문, 유명들이 아이들을 밀교나 사교 집단으로 인도한다고 말한다. 할로윈 축제를 성대하게 다루고 미화하는 것 역시 그것을 증명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할로윈 축제는 이미 세속화된 공휴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책에서도 그 이상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해리 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당신의 책에서 사교를 가르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그 질문자에게 “혹시 정신 병원에 가 보셔야 하지 않으세요?”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셋째, 이 책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작가가 그리는 인물들이 매년 성장하는 것을 독자들이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리가 매년 어떻게 자라 가는지, 론과 헤르미온느가 어떻게 자라 가는지 그리고 이 세 친구들 사이의 우정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며 이어지는지 매우 흥미롭다. 소년 소녀들이 자라가며 남녀간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라든가, 그들이 보는 세상과 그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성장해 가는 것도 보고 싶다. 영화를 보면 그들의 걸모습은 벌써 실감난다. 소설과 영화가 한데 어우러져 이들의 성장을 잘 그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넷째, 해리 포터는 도덕적이다. 주요 인물들 서로 간에 깊은 헌신을 한다. 친구 간의 우정, 서로에 대한 배려, 희생 등이 매우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해리는 자신의 안전을 제쳐 두고 론과 함께 여자화장실에서 트롤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헤르미온느를 구하러 간다. 론은 체스 게임에서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구하고 자신은 죽을 각오를 한다. 쓰러진 론을 보살피라고 부탁하고 떠나가는 해리에게 던지는 똑똑한 헤르미온느의 말이 작가의 생각을 대변해 준다. “책! 그리고 똑똑함!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우정과 용기야.”

해리가 학교 규칙을 어기는 것이 비교육적이고 꺼림직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빗자루타고 날기를 배우는 첫 시간에 네빌이 실수로 날다가 다쳐서 선생님은 그를 양호실로 옮긴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아무도 땅에서 발을 떼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그러나 말포이가 이를 어기고 네빌의 물건을 훔쳐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자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빗자루를 타고 올라가 그 물건을 되찾아 온다. 여기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어기고 친구의 물건을 되찾아 오는 해리의 행동을 단순한 불순종으로 낙인찍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만약 실제로 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역시 해리에게 박수를 보내지, 해리가 교무실에 불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섯째,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하다. 악이 인간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묘사와 함께, 정의와 신실함, 자비, 사랑이 맺는 선한 열매에 대한 묘사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선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또한 나와 있다. 인기나 성공(룩허트 교수처럼)보다 옳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주인공들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흥미롭다. 마법의 분류 모자가 해리에게 하는 말과 이에 답하는 그의 의지가 좋은 대조를 보인다.

“많은 용기가 보이네... 재능이 있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멋진 열망, 거 흥미롭군...” 그러나 해리는 “슬리데린은 아냐”라고 강한 의지를 보인다. 모자는 다시 말한다. “넌 위대해질 수 있어... 슬리데린은 네가 위대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아니라고?”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의 결정적인 말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그게 절 그리핀도르에 넣은 건”...“제가 슬리데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 해리는 말을 맺지 못했다. “바로 그거란다” 덤블도어 교수가 한 번 더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네가 톰 리들(볼드모트)과 크게 다른 점이란단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해리,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통해 나타나는 거란다.”

세상에서는 선함보다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작가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고 있다. 분류 모자가 자칫 숙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을 해리의 ‘선택’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어느 비평가는 조앤 롤링이 ‘선악’이라는 진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리 포터의 성공은, 선악 구도를 없애려고 하는 강력한 시대사조에도 불구하고 '선악'은 여전히 실재하며 인간들 역시 '선'이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여섯째, 인간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악으로 파멸하는 모습을 그린 것에서, 악에 대해 작가가 깊은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퀴렐 교수가 거울 앞에서 하는 고백은 매우 인상적이다. “볼드모트 경은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 주었어. 선과 악은 없으며, 오직 권력만 있다고, 그리고 너무 허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그 때 이후 난 그를 충실히 섬겼어... 그는 내게 아주 모질게 굴었지.” 악(볼드모트)은 세상에는 선과 악은 없고 오직 권력만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허약한 퀴렐은 볼드모트의 힘을 빌어 권력을 얻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퀴렐을 볼드모트가 자기에게 못되게 굴며 악 그 자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권력'이 주는 작은 만족을 누리려는 욕심이 눈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자신은 파멸되고 만다. 이러한 실상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은가? '권력'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결과는 톨킨의 [반지 제왕]에서 훌륭하게 그리고 있다. 반면에 해리 포터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악의 본질을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일곱째, 훌륭한 문학 작품들이 가지는 3대 공통 주제가 들어 있다. 즉, 창조의 아름다움과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구원(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인 열망이 분명히 드러난다. 작가는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자기희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점이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가장 중심 되는 배경은, 해리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악마로부터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다. 롤링 자신도 해리를 대신해서 엄마가 죽는 내용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상상의 소산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작가는 사랑과 자기희생이 인간을 보호하고 바꿀 뿐 아니라 악을 물리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영광스런 존재였으나 악으로 인해 뒤틀러지고 부서져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서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하셨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다. 자기희생이 해리 포터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여덟째, 저자 조앤 롤링의 이름 짓는 기술은 찬사를 받을 만 하다. 디킨슨 이후의 최대 작명가라는 말을 들을만하다고나 할까? 라틴어나 저자가 공부한 불어에서 이름을 많이 따왔다. 나쁜 아이로 나오는 말포이 이름에서 불어로 말(mal)은 '나쁘다'는 뜻을 갖는다. 볼드모트 이름은 불어로 '죽음의 비행'을 뜻한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모르도르'가 '죽음의 땅'을 지칭하는 것과 함께 생각하면 더욱 재미있다. 볼드모트를 지칭하는 이름들 역시 멋지다. You-Know-Who(누구나 알고 있는 그 사람), He-Who-Must-Not-Be-Named(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 주문들도 영어로 보면 특별한 주문이 아니라 행위의 뜻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빌 롱바텀을 굳어 버리게 만들었던

주문,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는 ‘굳게 하다’라는 동사 petrify와 ‘전체’를 뜻하는 total이 붙여져서 만든 합성어인 셈이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말이 많아 책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아홉째, 저자는 어려서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작가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어느 누구누구의 작품을 따온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을 자신의 책 속에서 녹여 새로운 것을 만들 어냈다고 표현하는 편이 옳을 것 같다. 한 작품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부단한 독서의 산물이었음을 말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권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리 포터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작품은 결코 아니다. 저자는 시대의 딸답게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들을 많이 빌려와서 현대의 독자들을 자기의 세계로 몰아넣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해리 포터를 정죄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위를 돌아보며 “나는 적어도 너희와 달라.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구”하며 일반 문화 자체를 모두 의심적인 눈으로 비판만 하기가 쉽다.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갖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꾸짖으시며 죄를 고백하는 죄인은 구원하시지 않는가?

세상의 문화를 볼 때, 내용 깊은 곳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한다.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은 당연히 가려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진리의 조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찬사를 보내 주어야 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J. R. R. Tolkien이 만들어 놓은 세계, ‘중간계(Middle Earth)로 가 보자. 톨킨은 1892년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부모 모두 영국인이었으며 톨킨이 세 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톨킨과 그의 남동생을 데리고 영국으로 귀국하였고 뒤따라 귀국하려던 아버지는 이듬해 질병으로 사망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가정은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어머니가 가르쳤고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는 책을 많이 읽었다. 톨킨이 열 두 살 되던 해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두 형제는 어머니의 배려로 오라토리오 수도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이후 톨킨을 평생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장학금 시험에 합격하여 대학 생활을 시작한 톨킨은 고대 중세 영어와 게르만 어, 나아가 북유럽의 언어와 역사에 심취하고 자신만의 언어인 엘프어(Elvish)를 만드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모든 언어의 바탕이 신화임을 깨닫고 신화를 창작하고픈 열망을 지니게 된다.

그의 첫 책, [호비트]가 1937년에 나오게 되고, 그 직후부터 쓰기 시작한 [반지의 제왕]은 1954년에서 1955년에 걸쳐 삼부작 [반지 원정대], [두 개의 탑], [왕의 귀환]이 나오게 되었다. 톨킨은 BBC가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인기 있는 작가이다. 그러면 그의 작품은 왜 그리도 인기가 있을까?

첫째, 톨킨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빼앗는 대단한 이야기꾼이다. 이야기가 진전되면서 독자들은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 기대하게 된다. 어떤 기막힌 사건들이 전개될 것인지 또한 책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이 특징이 바로 이 소설을 박진감 넘치는 영화로 만들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톨킨은 이 작품을 수없이 뜯어 고쳤다고 한다. 루이스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고 한다. 루이스는 이 작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많은 격려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루이스가 한 부분을 언급하기라도 하면, 비록 그것이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톨킨은 처음부터 다시 썼다고 한다. 그 정도로 톨킨은 이 작품에 정성을 기울였고 따라서 작품의 완성도도 더욱 높아졌다. 영미에서는 이 작품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읽어 주는 중요한 책으로 통하는데 소리 내어 읽으면 작품의 아름다움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한다. 영어 원작을 읽으면 번역판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셋째, 톨킨이 창조해 낸 '중간계'라는 세계는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독자에게 생생하게 다가온다. 톨킨은 지도도 만들었고 풍경도 자세하게 그려냈다. 유구한 역사도 만들어냈고 언어까지도 창조했다. 사실 톨킨은 언어를 대학 시절에 만들었으며 인물들은 그 후에, 그리고 이야기는 한참 후에 썼다고 한다.

넷째, 이 작품이 환상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로 하여금 현실 세계를 보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삶을 그린 것이 너무나 현실과 같아서 독자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기에 책 뿐 아니라 영화 또한 인기가 있었다. 골룸과 스미골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은 인간 속에서 선악이 싸우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으며, 프로도가 골룸을 미워하면서도 연민을 느끼고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가야 하는 긴 여행은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다.

다음에는 이 작품 곳곳에 숨겨져 있는 훌륭한 점들 중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는 이 작품의 영웅들이 바로 호빗들, 즉 반인들(halflings)이라는 것이다. 호빗은 키가 90cm -1m 가량의 작은 사람들이다. 바깥세상 사람들은 호빗족이 있는 지도 잘 모를 정도이다. 그러나 바로 이들이 주인공이다. [반지 원정대]에서 엘론드가 한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오. 하지만 무척 험한 길이 될 거요. 힘이나 지혜로도 그 길을 가기는 어렵소. 이 원정은 강한 자 만큼의 희망을 품은 약한 자가 해야 하오. 사실 종종 세상의 수레바퀴를 움직인 것은 이런 업적 때문이었소. 강자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린 사이에 작은 손들이, 꼭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요.” 이들은 권력을 원하지도 않았고 다만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선한 진실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진리를 보여 준다.

둘째, 누가 알아주거나 명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다. 아라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속에서, 본인 또한 자신을 알리려고 생각도 안 하며 오랜 세월을 떠돌며 순찰자로서 거친 세월은 보낸다. 마침내 그는 왕이 된다. 왕의 즉위식에서 그의 훌륭한 모습이 또 한 번 발휘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작은 호빗들에게 돌리는 광경이다. 참된 왕의 섬기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

셋째, 작품의 처음부터 계속되는 자기희생의 정신이다. 모리아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간달프나,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전쟁에 나가는 세오덴 왕, 프로도와 샘은 모르도르로 가면서 자신들이 살

아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중간계의 구원을 위해 돌아 서지 않고 길을 계속 간다.

넷째, 권력의 속성과 권력의 붕괴를 어느 누구보다 잘 그리고 있다. 권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갈라드리엘 조차도 유혹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 “나는 이 지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한 존재가 되겠죠..... 전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여행 끝까지 신실했던 샘조차도 자신의 손에 반지가 들어왔을 때에는 내주기가 어려웠다. 필사의 고생으로 운명의 산까지 간 프로도, 마지막 순간에 반지를 불 속에 던지지 못하고 돌아 선다. 결국 반지는 골룸과 함께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사우론도 끝내 망하고 만다. 보로미르는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며 죽지만 그의 아버지 섭정 데네소르는 끝내 멸망하고 말았다.

영국의 신화를 쓰고 싶어 했던 톨킨, 그의 작품을 기독교적이라 말할 수 있는가?

북유럽 신화에 심취했던 톨킨은 신화가 없는 영국에서 자신이 영국의 신화를 써 보리라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기독교적인 용어나, 예식, 신학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적 알레고리가 아닌가 하는 질문도 했지만 톨킨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작품 그 자체라고 말했다. 톨킨의 작품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

톨킨이나 루이스는 설화의 세계와 복음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신화나 동화 형식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훌륭한 신화나 동화가 복음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보았으며,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신화요 진정한 동화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교 사상(paganism) 중에서도 훌륭한 사상은 선 복음(pre-evangelism)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그들은 이교 사상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믿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환상 문학과 동화 형식을 빌려 독자가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준비 작업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훌륭한 이교도 신화 작가가 그리스도를 모른 채 ‘복음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작업을 감행한 것이다.

두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신화나 동화, 환타지 등이 진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할 뿐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가려내어야 한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환상 문학의 형식을 빌려옴으로써 진리를 더욱 잘 드러내었으며, 오랜 준비작업과 거듭된 수정을 거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가진 놀라운 재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작품을 이 세상에 선물하였다.